

세미나
지상중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영길 회장 특강

김 화 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11년 3월 15일(화) 오후 대교협 김영길 회장의 내부 특별강연을 개최하였으며 강연의 주제는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향이었다.

김영길 회장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다변화된 교육제도와 내용이 필요함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을 언급하였다.

그는 대학교육이 향상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은 물론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국가경쟁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바른 인성과 융합지식을 갖춘 창의 인재라고 하였으며 글로벌 창의인재란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예측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고전적인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아직 실무 중심형 인재를 대규모 양성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학교육을 통한 학생의 사고력 및 문제 해결능력 향상도 평가해야 하며 대학을 논문, 교수, 시설, 재정, 평판 등에 의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입학 할 때에 비하여 졸업할 때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OECD의 대학 평가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대학교육의 혁신 트렌드는 인재 선발제도를 포함해서 21세기 지식융합시대에 맞도록 대학교육 내용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은 선발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며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학부교육과정의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만 창의성, 재능,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도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학부중심대학을 강조하며 학부중심대학이란 학부생 비율이 매우 높은 대학으로서 대학의 핵심역량을 인재 양성에 두고 있으며 교수의 교육역량을 중요시하고 첨단 과학기술보다는 혁신기술을 연구하는 교육중심대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미국 학부중심대학에의 다양한 창의인재 배출 사례를 소개하였다.

창의성교육은 학부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부중심대학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글

로벌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국제화 및 창의성, 전공역량, 정직 및 인성을 포함하는 'I'자형 교육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김영길 회장은 마지막으로 21세기 지식융합사회를 주도할 창의성과 정직성을 겸비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은 대학 학부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학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대학이 세계일류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교협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